

화순 에슬레틱스 전남리그 초대 챔피언 등극

천왕리그 - 팔도참오리 막강 자연환경 꺾고 첫 패권
지왕리그 - 재규어스 장타력 뽐내며 2년 연속 우승
인왕리그 - 청연한방병원 4회 대거 5점 뽑아 역전승

결승전 스코어보드

◇전남리그
화순 에슬레틱스 0081124-16
화순 NH자이언츠 1122000-6
△승리투수 : 박원식
△감독상 : 이형석(에슬레틱스)
△최우수선수 : 최주성(에슬레틱스)
△우수선수 : 강영철(자이언츠)
◇천왕리그
팔도참오리 0133401-12
자 연 환 경 1021040-8
△승리투수 : 박정일
△감독상 : 양준태(팔도참오리)
△최우수선수상 : 양명준(팔도참오리)
△우수선수상 : 서재근(자연환경)
◇지왕리그
디스크스 0020003-5
재규어스 203002X-7
△승리투수 : 정경국
△감독상 : 정경국(세한기업 재규어스)
△최우수선수 : 홍성준(세한기업재규어스)
△우수선수 : 이상범(디스크스)
◇인왕리그
청연한방병원 0105111-9
아도니스 1120021-7
△승리투수 : 조서원
△감독상 : 김종관(청연한방병원)
△최우수선수 : 조서원(청연한방병원)
△우수선수 : 조정윤(아도니스)



“우리가 사회인야구의 지존” 25일 OB구장에서 열린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 천왕리그 결승에서 승리를 거둔 팔도참오리팀이 우승 행가대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기는 사회인야구인들의 축제의 장”

대회운영 총괄 이영현국장

“수준높은 플레이, 흥미로운 대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 운영을 총괄한 이영현(43) 사무국장은 “1회 대회 보다 더 좋은 환경과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다”며 “무등기가 지역 사회인야구

인들의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인 야구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우승팀들이 모두 2연패에 도전했지만 재규어스만 그 목표를 이뤘다. 흥미로운 대결들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무등기가 사회인 야구를 넘어 지역 야구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내년 대회에는 더 많은 팀들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등기를 통해 조성된 사회인야구의 분위기가 유소년, 클럽 야구로도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① 전남리그 우승 화순 에슬레틱스



“라이벌 있어 좋은 경기 했다”

이형석 감독 “선수들이 열심히 해줬다. 좋은 경기를 해준 상대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화순 에슬레틱스가 ‘지역 라이벌’ 화순 NH 자이언츠를 16-6으로 꺾고 전남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신설된 전남리그의 초대 챔피언이다.
이형석 감독은 “오전 8시 경기라서 날씨도 춥고 초반에 실수가 많았다. 선취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차분하게 하나씩하나씩 경기를 풀어가자고 했던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또 박원식 투수가 완투를 해주면서 마운드 운영에도 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대가 같은 화순리그에 속한 자이언츠였던 만큼 속속들이 아는 팀과의 승부. 이 감독은 “경기를 해보지 못한 다른 팀들과의 경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화순에서 활동하는 3개팀이 4강에 올랐다. 더 많은 경기를 못해 아쉬기도 했지만 즐거운 승부가 됐다”며 “겨울에 선수들이 많이 못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을 해주면서 대회 우승을 이룰 수 있었다”고 팀원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돌렸다.

② 천왕리그 우승 팔도참오리



“화합과 조직력이 우승 원동력”

양준태 감독 “자주 만나는 게 조직력의 비결이죠.”
제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 천왕리그에서 우승한 팔도참오리팀 양준태 감독은 신생팀의 우승비결을 ‘조직력’에서 찾았다.
양 감독은 “올 2월 새로운 스폰서를 만나 팀을 재정비하고 4강 진출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팀원들의 분위기가 좋아져 우승까지 이를 수 있었다”며 “추운 날씨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실적을 막아준 팀원들이 있었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밝혔다.
양준태 감독이 밝히는 조직력의 비법은 훈련과 함께 팀원간의 화합이었다.
그는 “훈련으로 만나는 자리 이외에 개인적인 모임을 만들어 팀원끼리 자주 만나서 가까워지도록 한다”며 “감독이 분위기를 만들고, 김창호 선수 등 선수출신 팀원들이 열정적으로 훈련을 시켜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③ 지왕리그 우승 세한기업 재규어스



“3연패 후 천왕리그 도전하겠다”

정경국 감독 “2연패를 넘어 3연패에 도전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세한기업 재규어스(단장 김치균)가 디스크스를 7-5로 제압하고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정경국 감독은 “시즌 중간에 선수들이 빠지기도 하고 성적이 하락하면서 어렵게 팀을 이끌어왔다”며 “무등기 하나만 보고 선수들이 달려왔는데 마무리를 잘하게 돼서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들의 우승 동력은 기본기.
정 감독은 “1회전에서 난전 백구클럽을 꺾은 뒤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수비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결승을 앞두고 기본기가 좋은 만큼 부담감없이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하자고 서로 독려했다”고 말했다.
또 “우승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최영준 대표에게도 감사하다. 올해는 팀 분위기가 많이 느슨했는데 내년에는 훈련도 많이 하고 강하게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등기 3연패를 이루고 천왕리그에 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④ 인왕리그 우승 청연한방병원



“선수들 우승에 대한 열망 강했다”

김종관 감독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팀원 모두가 우승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 7회 말까지 위험한 순간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시합에 임해준 동료들에게 우승의 영광을 돌리겠다.”
인왕리그 결승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9-7의 짜릿한 승리를 거둔 청연한방병원야구단의 김종관 감독은 직접 시합을 뛰진 못했지만 응원으로 사기를 높여준 팀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토요리그 때부터 함께 야구를 해온지 벌써 5년째. 이런 서로의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됐다.
2년 전부터 청연한방병원의 후원을 받아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우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청연한방병원팀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잦은 실책으로 불안함을 보였지만 결승전에서 맹렬한 타격을 선보이며 결국 지난 대회 우승팀 아도니스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됐다.

결승전 3루타 2개에 안방마님 역할 특출

MVP 최주성 “보약이요? 새벽에 운동나갈 때 아내가 웃어주기만 해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전남리그 MVP에 뽑힌 화순 에슬레틱스의 포수 최주성씨는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3회 분위기를 뒤집는 3루타 등 3루타 2개를 몰아치며 팀 우승을 이끌었다.
최씨는 유격수 출신이지만 팀의 백업포수로 나서서 안방마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결승에 출전한 화순 에슬레틱스의 최고참 선수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처음 야구를 알고 좋아하게 된 중학교 10대 소년 시절과 다름이 없다.
최씨는 “중학생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는데 대학을 갈 때로 가면서 야구선수의 꿈을 포기했었다”며 “10년 전부터 사회인야구를 시작했는데 새벽 일찍부터 야구연습을 하러 나가는 남편을 묵묵히 응원해준 와이프의 응원 덕분에 오늘 우승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비때마다 탄탄한 수비로 승리 이끌어

MVP 양명준 “팀플레이를 해야하는 야구를 통해 체력은 물론 인성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함께 땀방울을 흘리며 대회를 준비했던 동료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천왕리그 우승을 차지한 팔도참오리팀의 양명준은 올해 처음 야구를 시작했다. 야구 초보지만 매주 진행된 연습을 통해 실력을 키운 양씨는 어느새 2번 타자를 맡을 만큼 팀의 주축선수가 되었다.
이번 결승전 3회말 무사 2·3루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로 더블플레이를 선보이는 등 고비때마다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며 결승전 MVP의 자리에 섰다.
야구의 재미에 빠져지내는 양씨지만 잠시 그라운드를 떠나있어야 한다. 내년 군입대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양씨는 “제대 후에도 팔도참오리팀에서 다시 우승을 노리고 싶다”며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준결승까지 투수로 결승에선 3안타 2득점

MVP 홍성준 “형과 같은 팀에 있어서 마음 편하게 시합에 임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지왕리그 MVP를 거머쥔 세한기업재규어스의 홍성준씨는 ‘형제 야구인’이다. 같은 팀에서 4번 타자를 맡고 있는 홍성준(25)씨가 그의 친형이다. 4년 전 재규어스 선수가 된 최씨는 2년 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올 시즌 중반부터 그라운드에 복귀, 무등기 대회에 참가했다. 준결승까지 투수로 활약했던 최씨는 이번 결승전에서는 마운드 대신 타석에서 서서 4타수 3안타 2득점의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였다.
홍씨는 “MVP를 받게 됐지만 결승까지 함께 해준 같은 팀 동료들 한명 한명이 MVP라고 생각한다. 다음 대회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마운드서 뛰어난 위기관리로 승리 이끌어

MVP 조서원 “상대팀의 실책 때문에 분위기가 저하되므로 확 기울었죠.”
청연한방병원의 투수 조서원씨는 초반 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며 9-7 두점차이의 승리를 지키며 MVP에 올랐다.
상대팀인 아도니스는 중반까지 꾸준한 득점을 이어나갔지만 중반 이후 실책을 막지 못해 패하고 말았다. 특히 7회말 노아웃 상황에서 그라운드 홈런을 치고도 주자가 2루를 밟지 않아 아웃되면서 결국 청연한방병원팀으로 승기가 기울었다.
조씨는 “상대팀인 아도니스를 예전에 2번이 겨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시작했는데 우리팀의 워낙 실책으로 초반 분위기가 꼬였었다”며 “중반이후 우리 팀원들이 실책을 줄여줘 투수로서 마음 편하게 던져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김종관 감독과 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